

언론과 미디어*

물신화의 관점에서

박경우**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원)

우리는 언론을 제도화된 언론사나 미디어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물신화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이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산물 및 그 산물의 사회적 유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언론사나 미디어는 언론의 일부이다. 물신화된 언론관이 지배적으로 유포된 데는 언론의 전문직화와 미디어의 네트워크 권력화가 하나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언론 물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자신이 언론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고 언론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시민참여를 물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했다. 그러나, 미디어 테크놀로지는 언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언론의 본령은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자체에 있다.

키워드: 언론, 미디어, 물신화, 참여, 온라인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1. 문제의 제기: 언론과 물신화

우리는 언론과 관련한 현상을 전공으로 하고 있음에도, 창작 언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다소 난감해 할 때가 많다. 그것은 언론 개념이 그만큼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조언을 해준 이상길 교수(성균관대)와 최준호 교수(미국 펜실러이 파기대, RPI)께 감사드린다.

** metahodos@hanmail.net

이 질문을 일반인들에게 했을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대답은 기존의 신문사나 방송사가 바로 언론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제도화된 언론사 혹은 미디어가 언론의 전부였던 셈이다. 이처럼 언론을 언론사나 미디어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행위는 사실 언론학 전공자들에게서도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¹⁾ 왜 일반인들, 심지어 언론 전공자들까지도 언론을 언론사로 제한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된 것일까? 왜 우리는 언론은 곧 미디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일까?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언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해묵은 논제를 다시금 문제의 정면에 내세워 이에 관해 논의해보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기존의 제도화된 언론사와 미디어가 언론활동을 담당하는 중심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론사나 미디어가 언론 그 자체는 아니다.²⁾ 그럼에도 언론을 제도화된 미디어로 한정시켜 사고하는 경향은 일종의 몰신화(fetishism)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몰신화란 특정 대상이나 제도가 원천적으로는 인간의 행위와 실천에 의해 구성,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대상이나 제도가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해왔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상태를 말한다.³⁾ 상품을 가능하게 한 노동이 생

- 1) 만일 '지배적인(dominant)'이라는 의미를 널리 유포된 사실들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처럼 언론을 미디어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의 지배적인 해석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2) 오히려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언론사들이 언론 그 자체는 아니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기존의 언론사 혹은 언론 미디어들은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제도화된 언론사들은 언론의 일부라는 게 이 논문의 시각이다. 즉, '언론'은 언론사를 부분집합으로 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임에도, 언론을 언론사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방식을 비판하려는 게 이 논문의 본래의 의도이다.
- 3) 맑스(Marx)는 『자본론』 1권 제1장에서 인간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들 자체의 물질 성격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상품형태의 신비성이라고 지적한다. 상품은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데,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물건들 사이의 관계라는 환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Marx, 1867/1989,

락된 채 상품만이 인식되는 것(Marx, 1867/1989; Jhally, 1987)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을 가능케 한 인간의 상호작용이 간과된 채 언론사와 미디어를 언론 자체로 등치시키는 것도 바로 물신화의 일종인 셈이다. 사고가 물신화되면 제도나 사회적 산물의 변형 가능성은 요원한 일이 되기 쉽다. 문제가 인식되지 않는데, 변형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제도권 중심의 물신화된 인식은, 언론을 가능케 한 물질적 기초인 '우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박경우, 1998). '언론'은 '그들'의 행위이지 우리의 실천은 아닌 것이며, 주어져서 수용되어야 하는 제도적 산물이자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언론 개념을 (재)개념화하고, 언론 물신화는 어떠한 배경에서 나타났으며 그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언론에 관한 물신화된 인식을 막을 수 있겠는가? 아니, 더 적절하게는 언론을 어떻게 정의해야 원래 의미하는 바로서의 언론 개념을 복원할 수 있겠는가?

둘째, 언론 물신화를 가져온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요인들은 어떻게 해서 언론 물신화에 기여하게 됐는가?

셋째,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즉, 어떤 대안을 찾을 때 언론에 관한 물신화된 인식 착오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상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이 글의 짜임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제기에서는 언론을 제도화된 미디어로 한정시켜 파악하는 지배적인 견해가 물신화된 사고의 일종임을 지적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그렇다면 언론이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맥에서 볼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언론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정의하는 방식의 언론의 개념화는 언론 현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사 개념

91~92). 분석 대상의 한 사람인 엘스터(Elster)는 맑스의 물신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물신화된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관계가 대상들 사이의 비교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Elster, 1985, p.96).

들과의 차별화 문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대표적인 유사 개념인 여론, 공론장, 속의 개념들과의 차이를 논의했다.

미디어 제한적인 언론 이해가 몰신화라면, 그러한 언론 몰신화는 왜 발생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직화와 네트워크 권력화를 언론 몰신화를 야기한 두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편, 그렇다면 언론 몰신화와 같은 인식착오 상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실천적 관심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고, 그 장치로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기능성과 한계를 논의했다.

2. 언론의 (재)개념화

1) 언론의 (재)개념화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국어사전에서는 ‘언론’을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이라고 설명돼 있다. 최정호는 우리말의 ‘언론’이란 개념에는 ① 말, ② 말과 글, ③ 출판(press=printing), ④ 신문(press=newspaper), ⑤ 신문·방송·영화(mass media), ⑥ 저널리즘 등의 다양한 그리고 다단계의 의미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최정호, 1998, 7~10쪽). 이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근대적·기술적 수단인 대중매체 등장 이전의 언론 형태였다면, 뒤의 네 가지는 대중매체 등장 이후의 언론 형태라는 것이다.⁴⁾

4) 최정호는 한국의 언론학자와 일본의 언론학자들이 모였을 때의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한다. 이들은 모두 ‘언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 즉 조작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학자들이 쓰는 언론 개념은 매스미디어를 지칭하는 데 비해, 일본의 언론학자들은 말이나 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하버마스(Habermas, 1962/2001, 1992/2000)와 키인(Keane, 1984, 1991, 1995), 그리고 켈너(Kellner, 1990)와 달그렌(Dahlgren, 1995) 등의 공론장에 관한 논의와 이상길(2000, 2003)과 최정호(1986, 1998)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이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산물 및 그 산물의 사회적 유통”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언론을 정의하기 위해 공론장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은 공론장 개념 속에 들어 있는 공적 사안에 관해 논의하는 마당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물론 하버마스적 의미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해주는 논의의 장, 혹은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이러한 장의 형성은 공적인 사안에 관해 이성적으로 논의하는 주체의 형성과 이들의 개입 활동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이상길, 2000, 59쪽), 공론장에 관한 논의를 우리말의 ‘언론’ 개념을 정의하는 데 도입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⁵⁾

이러한 정의 방식은 언론을 첫째, ‘사회적 관심사’와 결부시키고 있다. ‘언론’의 사전적인 정의, 즉 생각의 표현과 그 산물이라는 의미로 언론을 개념화할 경우 사사로운 생각과 표현까지 모두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언론’과 ‘표현’의 차이가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개념화에 사회적인 차원을 도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둘째, 언론의 정의에서 ‘논의 과정과 그 산물’을 핵심적인 가치(값)로 설정하는 것은 언론에 관한 미디어 편향적인 논의들의 위험성(때로는 폭력성)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언론은 눈으로 보이는 미디어의 활동 못지 않게 미디어 생산물 이면의 논의와 상호작용 과정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5) 공론장은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이상길(2000)은 공론장에 관한 기존의 문제를 역시 생활세계의 이해 지향적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일어난다는(넓은 의미의) 공론장(저널리즘 부문만이 아닌)과 미디어 생산물 일반의 관계를 무시한 채, 그 범위를 스스로 제한해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48쪽, 괄호는 원저자. “미디어”는 원문에는 “텔레비전”이다). 그런 점에서 매체 중심적, 저널리즘 중심적 편향인 셈이다(47쪽).

이렇게 볼 때, 언론이란 개념에는 사회적 관심사라는 차원과 논의 과정과 그 산물이라는 차원이 상호 교직해서 발현되는 현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셈이다. 언론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언론행위’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언론활동은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 이미 존재해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언론의 주체, 즉 언론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박경우, 1998).

하지만, 언론현상은 미디어라는 물질적 구현장치를 매개하지 않는 한 사회적 현상으로 구체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현상은 미디어라는 제도적 구현물을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두 가지 핵심적 차원 외에도 셋째, ‘산물의 공간적 전파’를 함께 고려해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미디어는 언론현상의 사회적 유통을 담당함으로써 논의 결과의 공간적 전파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디어(media)인 것이다.

한편, 언론을 이렇게 정의할 때 마땅한 영어 표현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한국에서 그간 언론을 논의할 때 핵심적인 기준의 하나로 간주해온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였다.⁶⁾ 이 조항에는 “the freedom of speech”뿐만 아니라 “the freedom of the press”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 “the freedom of speech”를 언론의 자유로, “the freedom of the press”를 출판의 자유로 해석해왔다.⁷⁾ 그리고, 현실의 문맥에서는 “speech”와 “press”를 포괄하는 의미로 ‘언론’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언론이라는 말에는 press적인 것(the press)뿐만 아니라 발언(speech)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론 개념은 ‘speech’로 번역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6)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7) 여기서 press는 그냥 press가 아니라 “the press”이므로 ‘press적인 것’을 뜻한다.

'the press'로 간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journalism'이라는 말은 언론인들의 취재행위와 기사작성 방식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에 초점을 맞춰 공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을 살리기 위해 'Public Communica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Public Communication은 주로 PR이나 공공 캠페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 표현 역시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적당한 번역어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언론'을 영어로 음역하여 'Ean-Ron'이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적합한 영어식 표현이 없다면 무리해서 기존 개념에 합성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이 논문이 외국 학자들에게 읽힐 때를 대비해서 차라리 한국적 특수성을 살리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유사 개념과의 관계: 여론, 공론장, 속의

이러한 정의 방식은 언론현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사 개념들과의 차별성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인 개념들은 여론, 공론장, 속의이다. 이들은 모두 의견형성과 유통에 관련된 개념이면서 의견형성의 주체로 공중을 상정하고 있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언론 개념도 공중을 주체로 한 의견형성 과정을 논의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개념들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담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여론은 사회구성원들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양승목, 1997, 30쪽). 물론 이때의 상호작용은 집합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두 가지 과정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다. 여론은 사회적 담론으로서 집합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Price, 1992).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론 개념이 상호작용의 결과적 측면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론이란 그것

이 개인적 수준이든 집합적 수준이든,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서 형성되는 의견들과 의견들의 분포를 말하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Price & Roberts, 1987; Price, 1992). 게다가 여론을 미디어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정의할 때, 여론이란 미디어의 담론과 공중의 해석과정이 끊임없이 상호 교직 하는 가운데 생성·변화하는 사회적 담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양승목, 1997, 33쪽). 이런 맥락에서 여론 개념, 특히 여론 연구와 여기서 정의하는 언론 개념 사이에는 전자가 결과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자가 미디어가 생산한 담론들에 관한 의견들의 분포에 주안점을 두는 데 비해 후자는 담론이나 의견의 생산과정 자체에 착안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론장(Öffentlichkeit; public sphere)은 행동, 행위자, 집단 및 집합체와 같이 기본적인 사회적 현상으로서, 내용과 태도표명의 소통을 위한, 따라서 의견들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이다(Habermas, 1992/2000, 433쪽). 그러한 네트워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평등한 토론 혹은 숙의에의 참여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토론이 일어나는 공공의 물리적·추상적 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며, 자신의 사익을 넘어서는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인들이 구성되어야 한다(이상길, 2000, 59쪽). 말하자면, 공론장은 공적인 주체들에 의한 평등한 토론이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소통의 네트워크이자 공간인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언론은 공론장을 형성시키는 행위, 공론장을 비로소 가능케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그 산물이라는 언론 개념은 바로 공론장의 조건, 즉 공론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한편, 숙의는 상호 이해에 입각한 의사소통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로서(홍성구, 2001, 203쪽), 인간의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활성화하고 현실화하는 실천적 과정이나 도구로 파악할 수 있다(박승관, 2000, 163쪽). 숙의는 한편으로 참여자들이 의견을 심화·정교화시키는 과정이며 자신의 이익을 표명하는 경쟁적 과정이자, 공유된 이해와 공동체의 건설을 달성하고자 하는

구성적 과정이기도 하다. 즉, 속의는 개인성과 시민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관, 2000, 188쪽). 이렇게 볼 때, 하버마스적 의미로 공론장은 사적 개인들을 공중으로 전환시키는 '속의'의 공간인 셈이다(박승관, 2000, 174쪽). 이 글에서 정의하는 언론 개념은 본질적으로 속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다만 속의는 개인성과 시민성을 발휘함으로써 공적 이성을 활성화시킨다는 좀더 목적지향적 행위 개념이라면, 언론은 속의를 포함하여 상호작용 과정 자체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속의는 언론행위의 일부로서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구성 원리를 겨냥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볼 때, 여론이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의견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언론은 담론이나 의견이 생산되는 과정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며, 공론장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언론은 그러한 네트워크를 발생케 하는 행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속의가 이성의 공적 사용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라면 언론은 공적인 이성 사용을 포함해서 상호작용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3. 언론 물신화의 두 배경: 전문직화와 네트워크 권력화

우리들 자신이 언론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언론사와 미디어가 곧 언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 아니, 우리는 왜 사회적 실천에 앞서 제도 중심의 인식습관을 갖게 된 것일까?⁸⁾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언론의 전문직화 과정이, 또 한편으로는 언론 미디어가 사회적 행위를 연결짓는 거의 독점적인 네트워크 권력으로 자리잡게 된 사실이 언론 물신화에 기여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⁹⁾

8) 사실 근대화 과정은 개인(individual)을 발견해간 과정이기도 했지만(박승관, 2000, 166쪽), 반면 제도가 인간을 포위해간 과정이기도 했다.

9) 여기서 '기여'란 여러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하려는 것이지, 그것이 인과적으로

1) 전문직화

전문직화에 관한 논의는 초점을 전문직화의 주요한 기능이 무엇인가에 두는가, 아니면 전문직화를 낳게 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에 두는가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전문직화에 관한 논의들 가운데 기능 모델과 독점 모델을 대표적인 논의로 간주할 수 있다(강명구, 1993; Abbott, 1988).¹⁰⁾ 기능 모델이란 전문직을 산업사회 안의 직업집단이 스스로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를 도모하기보다는 이타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이상화한다(강명구, 1993, 32쪽). 기능 모델은 전문직화가 전문적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며,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의 논의는 인과성에 관한 설명(explanation)이라기보다는 단지 상관성에 관한 묘사(description)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과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할 것, 원인과 결과가 함께 변화하는 공변관계에 있을 것, 원인이 결과를 일으킨 궁극적인 이유여야 할 것 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변성과 시간성 요건만을 만족하고 있는 주장을 인과적 주장인 것처럼 간주하는 일이 많다. 인과적 발언이 인과성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신화화된 언명과 사고방식, 옴모론을 막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언론사들의 보도행태에는 인과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인과적 발언이 자주 발견되곤 한다. 상관관계란 인과성의 세 요건 중 공변성만 충족시키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 10) 에이보트(Abbott, 1988, pp.6~16)는 전문직화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라는 차원과, 전문직화를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차원을 통해 기존의 전문직화에 관한 논의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때, 결과는 내적 결과와 외적 결과로 나누는데, 내적 결과란 전문직화의 결과가 전문인 자체에게 미치는 것을 말하며, 외적 결과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전문직화를 가능케 한 요인에는 개인과 사회 두 수준이 있는데,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전문직화의 주체는 개인이 되며, 사회에 맞추면 사회적 맥락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기능모델은 전문직화를 결정짓는 것은 개인이며, 전문직화는 전문직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의인 셈이다. 이에 비해 독점모델은 전문직화를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자율성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며, 전문직화의 성사 여부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전문직이 요구하는 자질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자질이나 태도와 같은 개별적 속성을 관찰하여 이 속성에 따라 전문직화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직업간 경쟁이나 시장 상황과 같은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¹¹⁾

이에 반해 독점 모델은 전문직이 하나의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발현의 원인을 자연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배와 권위를 확보하려는 집단의 욕망에서 찾고자 한다(강명구, 1993, 33쪽). 전문직화는 사회 내에서 자율성을 유지하고 특정 영역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데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이란 일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동전략(mobility project)'을 가진 집단이며, 전문직화의 성공여부는 외부의 사회적 과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Abbott, 1988, p.15). 이런 관점에서 존슨(Johnson, 1972)은 특성과 구조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전문직화를 논의하는 것이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문직화란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에 내재하고 있는 긴장을 직업적 권위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틀에 의해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통제형태는 이질적이고 대규모인 소비자 집단을 상대로 직업적 독자성을 효율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pp.25~51).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직이란 사회적 관심영역에 대한 지적·조직적 지배를 모색하는 시장조직인 것이다(Larson, 1977).

언론활동이나 저널리즘의 전문직화에 관한 논의 역시 전문직화 일반에 관한 논의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전문직 일반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는 가운데, 언론 전문직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데 배경이 있을 것이다. 언론 미디어에 의한 언론행위의 전문직화에 관한 논의들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기능 모델과 독점 모델이다. 이 중에서 언론활동의 사회적 독점화와 관련된 논의는 독점 모델이다. 이에 따르면 언론의 전문직화란 언론

11) 그런 점에서, 기능 모델은 전문직이 왜 그러한 과정을 따랐는가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제공해주지 못한다(Abbott, 1988, p.5). 다만, 사후적으로 판결된 전문직화의 기준을 잣대로 전문직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행위라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전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이 성공한다면, 언론 미디어는 언론활동을 독점하는 제도권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언론에 관한 물신화된 인식이 지배적으로 유포돼 있다는 사실은 언론 미디어에 의한 언론활동의 독점적 전유가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인과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론사들에 의한 의도 혹은 욕망의 결과였는지는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사들에 의한 언론행위가 시민들의 말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위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제, 그렇다면 언론 미디어의 언론행위가 시민들의 언론활동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굳이 언론 미디어의 전문직화에 의한 인과적 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 네트워크 권력화

전문직화 논의들과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매스미디어가 사회 내의 네트워크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스미디어는 자신의 경험영역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 정보들이 유통되는 게이트를 형성하고 있다. 미디어는 사회 내의 각 행위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즉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세계 인식과정에는 언어, 개념, 담론 등과 같은 인식요소의 중재가 매개되기 마련인데, 그와 같은 인식요소들을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매스미디어만큼 강력한 제도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인식주체인 인간이 인식대상인 세계를 인식 가능하게 해주는 현대의 지배적인 소통양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박경우, 2002, 238~9쪽).

이런 맥락에서 조항제는 미디어가 일종의 ‘제도화된 병목’이 되었으며,

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수단에 머물지 않고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한다(조항제, 2001, 8~9쪽). 따라서 미디어의 병목적 권력화에 관한 분석이 미디어 권력화 논의에 핵심이라는 것이다. 미디어 병목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디어가 유일하게 제도화된 '권력 중개 영역(power-brokering sphere)' (Blumler & Gurevitch, 1996, p.127. 조항제의 같은 글, 17쪽에서 재인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개의 성격이나 절차에 정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직업적인 전문 언론인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의 선택과 제시방식을 결정하며,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공론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Habermas, 1992/2000, p.451). 이러한 역할은 복잡성이 증가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집중될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늘어나는 선택의 압력에 직면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택과정 자체가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미디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체로 직접적인 상호연관을 갖는 공동체 안에서의 왕래가 주를 이루었던 데 비해, 매스미디어의 등장은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까지 타자들을 연결짓게 되었다. 반면 타자를 인식하는 창이 미디어로 독점되고, 아울러 미디어 채널의 독과점화가 진전되면서 미디어가 행사하는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력적 자원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네트워크 행위자로서의 미디어의 권력이 증대된 것이다. 근대 이후 매스미디어는 '사건'을 구성하고 인지하게 만드는 주역이 된 것이다(이상길, 2003, 11쪽).

미디어가 현대의 지배적인 소통양식의 하나로서 제도화된 병목으로 집중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보는 창이 독점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식활동이 다분히 미디어 편향적인 한계, 시각적 한계 안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Carey, 1989).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는 객관성을 일종의 전략적 의례로 사용하면서(Tuchman, 1972), 자신들이 유통시키는 정보가 객관적 검증을 거친 신뢰할 만한 것, 권위 있는 것이라는 신비감을 자아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객관성은 대체로 시각적인 수단을 통해 집중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무엇을 본다는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산물, 즉 인쇄된 지면이나 방영된 프로그램을 보는 것에 그칠 뿐임에도, 은연중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관념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미디어 생산물 속에 담겨진 언어 혹은 담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렇게 생산되었는가 하는 생각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이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상태가 된 것이다(Carey, 1989; Innis, 1951; Stamps, 1995). 미디어가 보여주는 시각적 편향은 우리를 미디어에 제시된 내용이나 모습과 같이 겉모양에만 주목하게 하는 반면, 미디어 생산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누가 그러한 논의를 이끌었는지 하는 것과 같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 이를테면 덜 시각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는 맑스(Marx)적인 의미에서의 총체성(totality), 즉 깊은 구조(deep structure)에 대한 사고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가 하나의 네트워크 행위자로서 사회 내의 각 행위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은, 사회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불가피한 국면이다. 그러나 미디어에의 의존, 특히 시각화된 미디어에의 의존은 미디어 생산물 이면의 보이지 않는 것을 사고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경향이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4. 새로운 가능성: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온라인 저널리즘

언론 몰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식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식적 차원이란 시민들이 스스로 언론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물질적 차원이란 시민들의 말길이 사회 내의 언론 현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체적 자각과 제도적 보장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1) 시민참여의 활성화

물신화란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가 되는 주객전도현상이다. 따라서, 물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체화된 주체를 활성화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언론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 자신이 언론의 주체라는 인식을 자각시키는 것이 언론 물신화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은 미디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언론학자들에 의한 '계몽'이 긴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채널과 미디어 증가에 발맞춰 미디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미디어 교육과정에 미디어 생산물의 주체적 수용뿐만 아니라 시민들 자신이 언론의 주체임을 깨닫도록 하는 논의를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언론사나 언론인들은 자신은 시민들을 위한 대행자(media)일 뿐이고, 언론의 진정한 주체는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미디어적 장치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독자투고나 액세스 프로그램의 강화는 그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미 시민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 혹은 공공 저널리즘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각과 언론학자들의 계몽, 그리고 언론사들의 성찰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의 일상적 언론행위를 물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 이를테면 미디어 채널이 없다면 시민들에 의한 언론현상은 일종의 거품과도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말하자면 왓자지껄 쑥덕거리는 애기들을 물질적으로 구현해서 사회적으로 유통시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논의들은 한때의 수다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고, 언론현상으로까지 발현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은 시민활동을 언론현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2)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한계

시민사회 중심의 미디어 기획을 현실화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언론 모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였다(홍성구, 2001, 185쪽). 보만(Bohman, 2000)은 전문적 지식의 생산주체와 소비주체로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하는 과학계에서의 인식적 노동분업(cognitive division of labor)이 정치적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재생산되어,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일상적인 삶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의사소통의 분업구조는 의사소통의 질을 떨어뜨리고, 왜곡과 조작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홍성구, 2001, 185~186쪽에서 재인용). 따라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미디어 기획은 그 중요성이 항상 강조돼 왔었는데, 온라인 저널리즘¹²⁾이 하나의 예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은 윤영철(2001)에 의하면 그 유형을, 첫째 기존의 매스 미디어가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뉴스 서비스를 통신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둘째 컴퓨터를 활용한 취재보도나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한 저널리즘, 셋째 오프라인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신문, 넷째 뉴스그룹 서비스나 게시판 그리고 공공문제를 다루는 토론방 등과 같이 가상공간에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352쪽). 이 중에서 첫번째에서 세번째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제도화된 언론 활동을, 네번째는 언론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산업을 생산과정에 따라 나누면 ① 제작단계, ② 편집단계, ③ 배급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Owen, 1975, p.12).¹³⁾ 세 단계

12) 이 논문의 논지에 따르면, '온라인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온라인 저널리즘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13) 이 세 단계는 각기 개별적인 사업체들이 소유·운영할 수도 있고, 한 사업자가 두 단계 이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후자를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며, 미디어 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기업이 세 단계를 모두 소유·운영하고 있을 때 수직적 통합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통합의 형태를 치칭하

중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 곳은 배급단계였다. 이것은 배급단계가 대개 가장 많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보통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산업을 통제하려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 세번째 단계만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흔히 언론인들의 언론자유투쟁을 근거로 제작단계에 관심을 갖는 일이 많은데, 사실 통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배급단계에서의 통제 국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색다른 수돗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물이 공급되는 통로(conduits)인 수도꼭지만 틀어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작단계에 대한 통제는 언론인이나 창작인 같이 사람을 상대로 한 통제라는 점에서, 통제권력(대개는 국가)의 통제행사가 뚜렷하게 가시화되기 쉬운 반면, 배급단계로 통제의 초점을 옮길 경우 통제가 비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작인은 그 수가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데 비해, 배급단계는 이보다는 소수이기 마련이며, 그런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통제하기보다는 소수, 그것도 제도화된 소수를 상대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¹⁴⁾ 이런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배급단계는 자본의 통제와 국가의 개입 등으로 인해 진입하기가 가장 어려운 단계에 속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배급단계에 대한 진입장벽을 현저히 낮추었고, 결과적으로 미디어를 소유·운영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 특히 인터넷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제

는 용어로 굳이 '수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생산과정이 원료를 투입하는 투입단계(input)로부터 시작해, 투입된 원료를 가공·처리하는 단계(through-put)를 거쳐 완성된 산물을 시장으로 배출하는 산출단계(output)에 다다른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과정이 마치 물 흐르듯이 상류에서 하류로 진행되는 과정을 비유하기 위해 '수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14) 지금은 폐지된 공영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공영은 통제의 초점을 배급자, 즉 극장 사업자들에게 맞추려 한 시도가 있었다.

는 누구든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할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는 언론현상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땅지일보 같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발전은 미디어를 소유·운영하는 데 드는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으며, 게시판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논쟁과 댓글들은 이 논문에서 의미한 바로서의 ‘언론행위’가 활성화되고 있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거나(agenda-setting), 제어(agenda-control)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 미디어로 독점화됨으로써 네트워크 권력으로 성장하게 된 데 원인이 있었다. 온라인 행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로서의 언론 본연의 활동이 진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온라인 저널리즘은 언론 물신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이 언론 본연의 의미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저널리즘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이다. 실제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민참여는 아직 활성화됐다고 보기 이르며, 시민참여를 근간으로 한다는 오마이뉴스조차도 실제 참여자는 일부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가상공간에서는 말할 수 있는 자유는 확대되었을지 모르지만, 들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윤영철, 2001, 372쪽). 소비자 혹은 수용자 선택과정에 의해 소수의 비인기 의견이 배제된다거나 필터링을 통해 주목하고 싶은 것에만 귀를 기울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경험의 공유가 가져오는 공동의 관심사라는 것을 붕괴시킬 수 있고 이것은 국가 커뮤니티(national community) 개념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윤영철, 2001).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추상적 공중의 범위가 특수한 방향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역사는 인간이 지식능력을 확장시키고, 문화를 꾸준히 민주화하는 동시에 자유를 확대해가고 지식 독점을 침식시키는, 따라서 민주적 정치 구조를 강화해온 역사이기도 하다(Carey, 1989, p.147). 그렇지만, 테크놀로지와 같은 물질적 장치의 모색은 분출하는 언론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그릇 역할을 하는 데 한정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언론이란 사회적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자체에 그 본령이 있는 것이다. 만일 제도적·기술적 실현장치만을 문제삼는 데 그친다면, 이것은 또다시 기술결정론과 물질화에 빠져드는 경로가 될 것이다.

5. 결론

언론이 권력화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언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 조직이 권력화해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발상은 미디어의 권력화를 ‘언론’의 권력화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적인 언론 행위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언론은 미디어가 전부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언론을 미디어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행위를 물신화된 사고방식의 일종으로 비판하면서 언론이 발생하는 과정에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미디어가 언론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언론을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산물 및 그 산물의 사회적 유통이라는 의미로 정의했다. 언론을 이렇게 정의할 때, 언론의 주체는 그들 미디어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을 포함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언론 물신화를 낳은 주요 배경으로서 언론의 전문직화와 미디어의

네트워크 권력화를 제시했다. 언론의 전문직화는 언론 행위라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데 기여했으며, 미디어의 네트워크 권력화는 타자와 세계를 인식하는 창을 독점화함으로써 미디어가 행사하는 선택과 배제 자체를 권력화했다. 언론 물신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시민들의 활발한 언론 참여와 온라인 저널리즘을 제시했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언론 주체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기존 언론 미디어들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에 관한 물신화된 사고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언론사들에 의한 언론행위의 독점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제도 언론사들은 그만큼 자기 언론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 미디어들의 사회적 책임은 이런 맥락에서라도 다시금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⁵⁾

그럼에도, 언론은 흔히 생각하듯 미디어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완결된 산물처럼 획득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가꾸어나가야 하는 과정의 산물이듯이, 언론도 제도화된 실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 물신화의 배경을 언론 전문직화와 미디어의 네트워크 권력화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인과적 연관성을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전문직화와 네트워크 권력화가 관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설명력이 있는 것인지, 왜 그러한 요인들이 언론 물신화 현상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관한 분석이 빠진 셈이다. 따라서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요인 기술 수준에 그친 점이 이 논문의 한계이다.

15) 그런 점에서, 이야기의 주체를 생략하고 막연히 “언론”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신문사의 주장”, “~방송사의 보도” 등과 같이 언론의 주체를 명기하거나, 아니면 통칭적으로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도 물신화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순수하게 한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직화나 네트워크 권력화는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언론 몰신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¹⁶⁾ 따라서 한국에서 왜 언론 몰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돌려야 할 것이다.¹⁷⁾

그럼에도 이 논문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언론은 미디어가 전부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깨고, 미디어는 언론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들 자신이 언론의 주체라는 사실을 밝힌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구 (1993). 『한국 언론전문직의 사회학』. 서울: 나남.
- 김민환 (2002).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박경우 (1998. 3. 23). 언론의 제자리 찾기. 『연세춘추』, 2.
- _____ (2002). 다채널TV사업자의 채널 번들링에 관한 연구: 미국 케이블 TV사업자의 채널 번들링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6권 1호 234~267.
- 박승관 (2000). 속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45권 1호 162~194.
- 양승목 (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17호 6~40.
- 윤영철 (2001). 온라인 저널리즘의 현황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와 언론』 (351~381쪽). 서울: 유민문화재단.
- 이상길 (2000). 감성교육: 공공성과 텔레비전 문화. 『프로그램/텍스트』, 2호 47~76.

16) 이러한 지적은 이상길 교수가 제기한 것임을 밝혀둔다.

17) 김민환(2002)을 참고하면, 한국언론사를 다루는 분야에서 언론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간한 『한국의 언론 I』이었다(28쪽). 그 이전에는 언론사는 신문사(新聞史)와 같은 매체사(媒體史)가 주를 이루었다.

- _____ (2003). 공론장의 사회적 구성: 가브리엘 타르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1호. 5~30.
- 조항제 (2001). 민주주의와 미디어의 권력화: 이론적 성찰. 『언론과 사회』, 9권 3호. 6~39.
- 최정호 (1986). 조선조 공론권의 구조변동에 관한 시론. 『사회과학논집』(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7권. 95~106.
- _____ (1998. 12. 18). 언론(言論)과 “정명(正名)”: 바른 말과 바른 이름. 최정호 교수 정년퇴임 기념강연회 강연원고.
- 홍성구 (2001). 속의민주주의와 인터넷 시민미디어. 『언론과 사회』, 9권 4호. 173~208.
- Abbott, A. (1988). *The System of Profession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Blumler, J. & Gurevitch, M. (1996). Media change and social change: Linkages and junctures.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2nd. (pp. 120~137). London: Arnold.
- Bohman, J. (2000). The division of labor in democratic discourse: Media, experts, and deliberative democracy. In S. Chambers & A. Costain (Eds.). *Deliberation, Democracy, and the Media* (pp. 47~64). New York: Roman & Littlefield.
- Carey, J. W. (1989). Space, Time, and Communications: A Tribute to Harold Innis. In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pp. 142~172). Boston, MA: Unwin Hyman.
- Dahlgren, P. (1995).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Citizenship, Democracy and the Media*. London: Sage.
- Elster, J. (1985). *Making Sense of Marx*.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abermas, J. (1962).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한승완 옮김.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
- _____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한상진·박영도 옮김. 2000.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서울: 나남).

- Innis, H. (1951).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Toronto Univ. Press.
- Jhally, S. (1987). *The Codes of Advertising: Fetishism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Meaning in the Consumer Society*. London: F. Pinter.
- Johnson, T. (1972). *Professions and Power*. London: MacMillan.
- Keane, J. (1984). *Public Life and Late Capitalism: Toward A Socialist Theory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7
- _____ (1995).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sphere. *The Communication Review*, 1 (1). 1~22.
- Kellner, D. (1990). *Television and the Crisis of Democracy*.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Larson, M. (1977). *The Rise of Professionalism*.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 Marx, K. (1867/1991).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김수행 옮김. 1991. 『자본론: 자본의 생산과정』. 서울: 비봉).
- Owen, B. (1975). *Economics and Freedom of Expression: Media Structure and the First Amendment*. Cambridge, Mass.: Ballinger.
- Price, V. & D. Roberts (1987). Public opinion processes. In C. Berger & S. Chaffee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Newbury Park, CA: Sage.
- Price, V. (1992). *Public Opinion*. Newbury Park, CA.: Sage.
- Stamps, J. (1995). *Untinking modernity: Innis, McLuhan, and the Frankfurt school*. Montreal: McGill-Queen's Univ. Press.
- Thompson, J. (1995).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Cambridge: Polity Press.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4). pp. 660~679.